

# “100년 전 부품·차량 복원... 벤츠 과거·미래 연결 타임머신”

독일에게 가장 많이 알려진 도시는 베를린, 뮌헨, 프랑크푸르트, 하지만 독일 남서부 바덴뷔르템베르크 주를 대표하는 도시 슈투트가르트도 국내 여행객들에게 익숙한 곳이다. 발레리나 강수진의 도시이자 손흥민과 김민재 등 국내 선수들이 멋진 활약을 펼친 곳이기도 하다. 특히 국내 수입차 시장을 이끌고 있는 메르세데스-벤츠의 고향이기도 하다. 최근에는 자동차 마니아들이 독일 여행시 메르세데스-벤츠의 역사를 보기 위해 슈투트가르트를 찾을 정도다.

## Q 르포 독일 메르세데스-벤츠 클래식 센터

### ◆ ‘품질·혁신·감동’ 벤츠 숨결을 느끼다

“헤리티지는 미래를 창출한다.”(마르쿠스 브라이트슈베르트 메르세데스-벤츠 헤리티즈 총괄 책임자)

20일(현지시간) 슈투트가르트 공항에서 차로 40여분 이동해 도착한 메르세데스-벤츠 클래식 센터는 메르세데스-벤츠의 약속인 품질과 혁신, 감동을 확인할 수 있는 곳이다. 입구를 들어서자 E클래스 초기 모델로 1970년대 생산된 W 123 모델을 비롯해 카슈미르 마하라자를 위해 1930년부터 제작된 슈퍼스포츠까지 정비사들의 손을 거쳐 새로운 모습으로 재탄생한 다양한 차량들이 반갑게 맞았다.

마르쿠스 브라이트슈베르트 총괄 책임자는 “백년전 차량부터 현재 판매 중인 모든 차량의 설계도를 가지고 있다”며 “글로벌 로컬회사가 존경 받으려면 헤리티지(유산)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를 움직이는 힘은 윤리적인 가치로 최고의 차량을 만들어내는 것이며 뛰어난 혁신과 개척정신은 언제나 메르세데스-벤츠의 강점이었다”며 “나와 동생 그리고 아들 모두 벤츠에서 일한다는 것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 뛰어난 혁신·개척정신이 ‘벤츠의 강점’ 정비사·건설팀 45명 구성 전문성 확대 복원비 약 10억, 차량값 많게는 수천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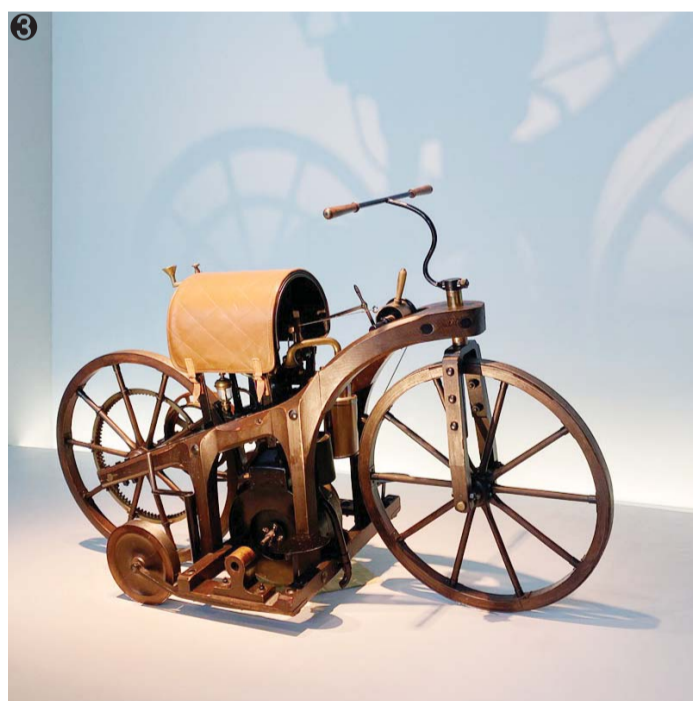
메르세데스-벤츠 클래식 센터는 1993년 독일 슈투트가르트 인근의 펠바흐 지역에 문을 열었다. 첫 개장 당시 공식 명칭은 ‘메르세데스-벤츠 올드 타이어 센터’였으나 1996년 현재의 이름을 갖게 되었다. 메르세데스-벤츠 클래식 센터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클래식 자동차의 적극적인 보존에 대한 기준을 정립했다. 펠바흐 지역 외에도 2006년부터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어바인 지역에 클래식 센터를 운영 중이다.

센터의 주요 활동 영역에는 클래식 차량의 광범위한 부품 교체와 정통적인 차량 수리 작업이 포함되며, 일반 고객뿐만 아니라 메르세데스-벤츠 클래식 차량 거래를 담당하는 올 타임 스타즈의 차량을 대상으로 수리를 진행한다.

메르세데스-벤츠는 올해 6월부터 클래식 센터의 전문성 확대를 위해 정비사 40여명과 건설팀 5명으로 구성된 팀을 조직했다. 이곳에는 5만 2000여개의 부품과 자체컬렉션 200여개를 비롯해 1200여대의 차량을 보유하고 있다.

실제 이날 메르세데스-벤츠 클래식 센터 내 자리한 정비사들의 작업 공간에서는 1920년대 레이싱카로 제작돼 첫 주요 레이스에서 승리를 기록한 차량의 복원 모습을 볼 수 있었다. 100년 이상된 레이싱카를 다시 도로위에 올릴 수 있다는 메르세데스-벤츠의 열정과 자신감을 느낄 수 있는 대목이다. 차량 가격은 특성에 따라 10억원 정도 복원 비용이 발생하며 차량의 가격은 적게는 수십억원에서 많게는 수천억원에 이르는 몸값을 자랑한다.

마르쿠스 브라이트슈베르트 총괄 책임자는 “클래식 센터 작업장에서는 완전 또는 부분 복원뿐만 아니라 대체 부품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설계도를 통해 부품을 다시 생산한다”



① 메르세데스-벤츠 클래식 센터 전경. ② 다임러가 1886년 내놓은 최초의 4륜 자동차(왼쪽)와 벤츠가 1885년 내놓은 세계 최초의 자동차. ③ 다임러가 세계 최초로 내놓은 모터바이크. ④ 메르세데스-벤츠가 카슈미르 마하라자를 위해 1930년부터 제작된 슈퍼스포츠. ⑤ 메르세데스-벤츠 박물관 1층에 전시된 레이싱 차들. /양성운 기자



고 설명했다. 이 곳은 단순히 클래식카 복원을 넘어 메르세데스-벤츠의 탄생의 초석이 된 뛰어난 내구성과 품질을 기반으로 ‘내일 더 많이 오래 기억될 수 있는 차’를 만들겠다는 창립자들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

### ◆ ‘삼각별 탄생’ 100년의 역사 한눈에

메르세데스-벤츠 클래식 센터에서 20여분 이동해 찾은 ‘메르세데스-벤츠 박물관’은 삼각별로 대표되는 명품 브랜드 메르세데스-벤츠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곳이다.

메르세데스-벤츠의 역사는 자동차 역사와 함께 한다. 칼 프리드리히 벤츠는 1883년 독일 만하임에서 자신의 회사를 설립하고 1885년 1월 4행정 가솔린 엔진에 3개의 바퀴를 적용한 세계 최초의 자동차를 선보였다. 이 차는 0.75마력에 시속 16km의 속력을 갖췄다. 고틀리프 빌헬름 다임러는 1885년 빌헬름 마이바흐와 함께 가솔린을 이용한 0.5마력짜리 엔진을 발명한다. 다임러는 1886년 1.1마력에 시속 18km의 성능을 갖춘 ‘전동식 마차’라는 이름의 세계 최초의 4륜 자동차를 선보였다.

### 1885년 시속 16km 세계최초 자동차 선보 벤츠의 경쟁자 다임러와 1926년 ‘합병’ 박물관서는 車 탄생부터 발전과정 안내

벤츠와 다임러는 자동차 기술 경쟁을 벌이던 중 1926년에 합병하며 다임러-벤츠라는 합작 회사를 설립한다. 자동차 산업과 벤츠의 역사에서 중요한 전환점이기도 하다.

이같은 역사가 담겨있는 곳이 바로 메르세데스-벤츠 박물관이다. 2006년 독일 슈투트가르트에 개장한 메르세데스-벤츠 박물관은 메르세데스-벤츠와 다임러 브랜드뿐만 아니라 독일 및 유럽 지역을 대표하는 랜드마크로서, 누적 방문자수가 1300만명(2024년 10월 기준)을 초과했을 정도로 세계적으로 명성이 높은 박물관이다. 특히 2001년 설계 작업에 들어가 2006년 완공할 만큼 공들인 만큼 외관부터 세련된 디자인이 눈길을 끈다.

연면적 1만6500㎡, 총 9층 규모의 메르세데스-벤츠 박물관에는 160대의 차량과 1500여 개의 전시품이 전시되어 있다. 메르세데스-벤츠 박물관은 자동차의 탄생부터 메르세데스-벤츠 브랜드의 시초와 발전과정, 그리고 모빌리티의 미래까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방문객들을 안내한다.

박물관은 8층에서 관람을 시작한다. 과거와 미래를 연결해주는 타임캡슐을 연상케하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8층에 올라가면 “나는 말을 믿는다. 자동차는 그저 일시적인 현상일 뿐이다”라는 문구가 적힌 백마 조형물을 마주한다. 독일제국의 마지막 황제인 빌헬름 2세가 1905년 내연기관을 갖춘 새로운 탈 것이 거리에 점차 늘기 시작하자 남겼다 는 말이다. 당시 자동차 역사를 송두리째 바꾼 메르세데스-벤츠의 자신감을 느낄 수 있다. 나선형 모양의 통로를 걸어 내려보면 벤츠가 내놓은 최초 엔진과 자동차, 모터사이클, 선박·비행기 엔진, 교황의 퍼레이드용 차량, 영국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의전 차량 등이 전시되어 있다. 이 외에도 20여년간 단 366대만 생산된 램프6와 다임러 DE36쿠페 등도 전시되 관람객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또 최신 친환경 자동차까지 벤츠의 역사와 미래를 엿볼 수 있다. 1층 전시장은 트랙위에 차량을 배치해 마치 레이싱 현장을 연상케 하는 도로위에 차량을 배치해 실제 주행하는 듯한 경험을 하게 된다.